

하루를 시작하며



권희진
디자이너블루 서점 대표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고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제주 업소들은 반가워할 소식이었지만 관광객이 늘어나면 구경만 하고 가는 손님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서점으로서의 마냥 반가운 일도 아니다. 혹시라도 손님 중에 확진자가 나올 걸 대비해 방문자를 연락처를 받아줘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하고 소독이 쉽지 않은 책의 특성상 그냥 들춰만 보다 가는 손님들이 많아지는 것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그렇게 조금씩 예민해지고 있

자신의 감수성 정도는 자신이 지켜라

던 차에 일어난 일이다. 서점 오픈 시간 전에 손님들이 먼저 와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날도 그런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서점을 나갔다. 예쁘게 차려 입은 여자분 두 분이 밖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난 서둘러 오픈 준비를 마치고 두 분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밖을 보니 두 사람이 갑자기 차를 빼서 가버리는 게 아닌가. 나는 너무 허탈해진 나머지 잠시 멍하게 있다 밖으로 나가봤는데, 간 줄 알았던 그분들이 옆집 펜션 마당에 차를 대고 옆집 돌담 위에 올라앉아 사진을 찍고 있었다. 옆집 정원어랑 같이 우리 서점을 찍으려는데 배경에 차가 나오니 잠깐 차를 옮긴 것이었다. 순간 최근 다른 서점에서 애들이 옆집과라 사이에 쌓아놓은 돌담을 넘나들며 장난을 치다 와르르 무너져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가 같이 떠오르며 "사진

찍으러 오신 거면 서점 들어오실 필요 없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소리를 치고 말했다. 부랴부랴 달려 나와 맞은 첫 손님에 대한 실망감과 소위 진상 손님들에 대한 이전 기억들이 합쳐져 서점을 하는 것에 대해 회의가 들 지경이었다. 그리고서 10분쯤 지났을까? 두 분이 다시 돌아와서 "사장님, 저희한테 화내신 게 저희가 남의 펜션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사진을 찍어서인가요?"라고 정중히 물어보셨다. 자신들한테 아무 설명 없이 화를 내는 바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몰라서 똑같은 실수를 할까봐 물어보기 위해 다시 왔다는 것이다. 여행 오기 전부터 첫 코스로 찍어놓고 공항에서 렌트를 하자마자 우리 서점으로 바로 왔는데, 주변이 너무 예뻐서 차까지 치우고 사진을 찍게 되었다며 잘못이 있었다면 잘 몰라서 그랬던 거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다. 난

그제야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몸이 마음까지 바짝 마르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잘못된 점은 웃으면서 찬찬히 설명해주어도 될 일인데, 책방 주인 3년차가 되니 이제 서점에 오는 손님들은 대중 걸모습만 봐도 진상인지 아닌지 다 안다는 나의 오만함과 타성이 불러낸 실수였다. 그분들이 예민하고 재수 없는 책방 사장이라 욕하며 그냥 가버리지 않고 용기 내 돌아와 그렇게 물어주어, 우리 서점의 모토인 '자신의 감수성 정도는 자신이 지켜라'라는 말을 돌아볼 기회를 주어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 말은 일본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의 동명의 시에서 따온 것인데, 지면상 전문을 소개할 수 없지만 언제나 마음은 메달라간다고 느껴진다. 면 꼭 한 번 찾아 읽어보기를 권한다. 감수성은 타인을 이해하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다. 자신의 감수성은 정말 스스로 지켜야 살아야 한다.

사설

자가격리자 관리, 보다 세심하게 하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됐던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염된 환자가 숨진 것도 아니고 단순히 격리 중에 이같은 극단적인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격리자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15분쯤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A(27·서울)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A씨의 지인이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시설 관계자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입도한 제주지역 18번 확진자인 방글라데시 유학생과 같은 항공기를 탄 접촉자로 분류돼 19일부터 격리중이었습니다. 제주도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A씨의 검체를 채취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인재개발원 입소 과정에서 자신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서울에서 정신건강 관련 치료 전력이 있음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는 감염 예방보다도 더 중요한 정신건강 질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간과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A씨에게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증상임을 알려주는 신호들이 있었습니. 입소할 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보건소를 통해 대리처방을 받으면서 약을 복용한 것임도 A씨는 격리 중 불안 증상을 호소하며 '자가격리 중인 지인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이 복용약 대리처방을 해준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이뤄진 조치는 없었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심리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감염 예방 못지않게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폐운활유 처리 대란, 조기 대응으로 막자

도내 자동차에서 사용후 나온 폐운활유 처리가 막히면서 '제2의 제주 쓰레기처리 대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간 카센터나 자동차공업사 등에서 담긴 그림엽서와 선물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고대모 기자

정상적인 처리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해 겪었던 '제2의 제주 쓰레기처리 대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최근 몇년간 인구유입과 관광객 수 증가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생활쓰레기 총량 처리를 감당못했고, 제주산 팔트 제조 업체로 사용돼 왔지만 법 개정으로 중단되면서 처리 대란을 겪어야 할 상황입니다. 제주지역 유일한 폐운활유 재활용업체는 작년까지 27년간 폐운활유를 정제유로 재생해 도내 9개 아스콘 회사에 아스팔트 제조 업체로 공급해 왔습니다. 문제는 작년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영향으로 정제유 대신 LP가스가 아스팔트 열원으로 사용되면서 거래가 중단된 겁니다. 해당 업체는 이후 폐운활유를 처리해 저장탱크(5000드럼 규모) 용량을 다 채웠고 더 이상 카센터 등으로부터의 폐운활유 반입도 중단 상태입니다. 도내 폐운활유가 빠른 시일내에

열린마당

소나무재선충병 7차 방제를 마무리하며



김민형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소나무는 늘 푸르게 살아있어 오랜 수명을 상징함과 동시에 지조·절개·충절을 대표하는 십장생 중의 하나이다. 이 같은 소나무에 1905년 일본에서 최초로 '소나무마름병'이라는 병이 발생했고 1965년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서귀포시는 2010년 대정읍에서 최초 발생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약 1500마리의 재선충을 가지고 있는 솔수염하늘소(매개충)가 여름~가을철에 나무를 갹아먹음으로써 솔수염하늘소안에 있던 충이 나무로 들어가 나무의 수분·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이다. 현재까지 이 병에 대한 원천적인 치료기술이 없어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게 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제방법은 복합방제이다. 복합방제는 피해목을 제거함과 동시에 건설한 소나무에 예방나무주사용 약제를 주입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들어와도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방제방법이다. 현재까지 서귀포시에서는 2013년 1차 방제부터 2020년 7차 방제까지 피해목 59만본을 제거했으며 같은기간 62만본의 예방나무주사 방제를 실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8차 방제에서는 피해고사목 2만5000본 제거와 1800ha·60만본에 예방나무주사를 주입할 예정이다. 소나무는 우리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숲을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이므로 지속적인 육성과 체계적인 보호 관리로 늘 푸르른 소나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뉴스-in

"취중에 실수하면 예의 아닌것 같아..."

도의원 '숙취' 질의생략 논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길호 의원이 "취중 질의 하면서 실수를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질의를 생략해 물의. 23일 열린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현 의원은 "아제 강원도 의원들과 교류하는 와중에 술자리가 있어 술을 좀 마셨다"면서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 중언부언 해질 수 있다며 질의를 포기. 현 의원은 "술 마시고 질의 못하는 부분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며 질의를 마무리. 오은지기자
호국보훈 유공자 감사 전하기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이 호국보훈 유공자 70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해 눈길. 제주농협지역본부는 23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호국보훈 유

공자 기억하고 감사마음 전하기' 행사를 열고 국가유공자에게 전달할 선물키트를 포장하고 국가유공자와 가족에게 전달. 변대근 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70명의 봉사자들의 마음이 담긴 그림엽서와 선물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고대모 기자
코로나 후 문화정책 워크숍
○...원희룡 지사가 '문화예술 분야 특별명령'을 발표한 일과 관련 제주도 문화정책과 주관으로 23일 제주문예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워크숍을 마련. 이날 각 기관 실무담당급 이상 참석자들은 '특별명령'에서 밝힌 '제주형 문화 뉴노멀 프로젝트' 추진 등 '코로나 후' 문화예술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논의. 앞서 원 지사의 가칭 '문화복지기금' 설치 언급에 대해 문화계 일각에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응인 만큼 이번 워크숍이 향후 어떤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 진선희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웅진(향년 84세)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를 위로하고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니 경황이 없어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6월 24일
부인 김순희
아들 고대원, 딸 김영선
대길 박영선
대용 김희정
대천 김선미
딸 고복숙, 사위 지보근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 祚
누수방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블랙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한라일보가 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도내·친다·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이코'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시 732-5552